

“AI”를 막는 것이 살 길이다



본지 김 한 웅 부장

최근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신종플루”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AI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닭고기 업계로서는 “신종플루”의 확산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신종플루”가 창궐하는 가운데 AI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AI 발생 때마다 나서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임박했다느니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때를 만나기라도 한 듯 다시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10~11월 사이에 대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AI”나 “사스”까지 들먹이면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에게는 먼 나라내지는 공항에서나 벌어지는 일로만 생각했던 열 감지기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웬만한 회사까지 일반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일부 회사원들은 동료와 같이 공동으로 식사도 안 하려고 한다니 이젠 “신종플루”가 갖는 파위는 기우의 정도를 떠나 “신종플루” 노이로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기야 국내에서만 “신종플루”로 인한 희생자가 세 명이나 나타났으니 시민들의 반응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신종플루로 인한 불뚱이 어디로 번져나갈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계속 커질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AI”의 발생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수밖에 없다.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준다는 명목 아래 일부 의약 전문가들은 “AI”와 “사스”를 들먹이면서 치사율이 어땠고 할 때면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다.

정부당국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 한다는 취지에서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있다 보면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한다.

백신제조회사인 N사의 주식은 물론이고 그와 별반 상관도 없는 닭고기, 계란관련 회사마저도 주식이 상한가까지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난 8월 전북 고창의 한 오리사육농가에서 하루에 수백 마리씩 대량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종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 일단은 “AI”가 아닌 폐혈증 계통의 질병으로 확인돼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닭·오리사육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지난 동절기는 닭·오리 사육농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AI”의 발생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이미 절기는 만곡이 무르익는다는 “백로”로 접어들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AI”의 발생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